예배당은 없어도 성전은 있어야 한다

(열왕기상 6:1~38)

1.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사백팔십 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사년 시브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2.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육십 규빗이요 너비가 이십 규빗이요 높이가 삼십 규빗이며
3.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이십 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십 규빗이며

14.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15.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16.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이십 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17.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사십 규빗이며
18.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19.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오늘 말씀 중심으로 <예배당은 없어도 성전은 있어야 한다>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예배당은 없어도 성전은 있어야 한다'
예배당은 예배당일 뿐이라는 사실을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의 정서상 예배당을 성전으로 오버랩을 시켜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신앙의 문제를 초래하고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당이라는 건물은 구원에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에너지를 쏟아야 할 대상이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에는 예배당 건물이 관공서 건물로 사용되거나 개인의 회사 사무실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젊은이들이 밤에 술 먹고 노는 디스코장으로 변한 곳도 있었습

니다. 캐나다에 있을 때에는 예배당이었던 건물을 구미세계로 들어온 불교나 라마교 등의 종파들이 사찰로 사용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당 건물이 이러한 용도로 사용된다고 해서 특별히 안타까워하거나 아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쉬운 점은 교회 자체가 쇠락해 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우상으로 가득 찬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고, 거꾸로 성전이었던 자리가 황폐화되어서 이방인들의 말발굽에 짓밟히게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돌과 나무로 성전을 건축하지만, 이 건축은 우리 각자가 건축해야 될 성전의 설계도면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건축을 명하신 성전의 정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기 위하여 선택한 장소입니다. 선민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신약성경 고전3: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시고 6:19절에서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사도바울이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요2:19절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하셨는데 당신의 몸을 성전으로 비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지으신 성전의 의미에서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이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장소로 택함 받았다는 것이 선민의 특징이자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고 그 이름을 우리의 마음에 두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이유도 선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함이었고, 우리의 마음을 성전으로 만들 수 방법을 솔로몬의 성전건축의 설계도로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과도하게 예배당 건축에 힘을 기울이는 것은 엄격하게 말해서 구원이나 신앙의 역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인들의 삶을 마음 바깥과 안쪽을 구분해 본다면 바깥쪽으로 너무나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온 교인들의 마음을 예배당 건축에 쏠리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바깥에 힘을 쏟는 것은 전혀 선민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을 무관심하게 방치하고 문제 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재미가 없고 평생을 믿어도 신앙의 진보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선민은 마음을 성전으로 건축하는 것에 온 힘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기에 살아 움직이며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하는데 선민은 마음의 영역 안에서 완결되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손가락 발가락 하나 까딱하기 이전에 내 마음 안에서 내 생애 동안의 나의 할 일을 완결지어야 합니다. 이전에 살던 방식 안에서 내가 최고의 기쁨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던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것만 얻으면 완벽하게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최고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마음의 영역 안에서 매듭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이 성전이 되어야만 합니다.
마음이 성전이 되면 사지백체 하나 움직이지 않으면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절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 같이 반복해야 합니다. 매일같이 성전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의 상황이 걱정스러운 점은 재벌들의 본사보다도 교회의 예배당이 화려합니다. 그러나 기가 막히게 잘 지어놓은 예배당 안에는 성전들이 하나도 없고,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인간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쫓기다가 차안에서 두 세 사람이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 사람들이 성전이면 그 예배가 참 예배가 됩니다. 예배당 건물은 본질이 아닌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합니다. 솔로몬의 성전건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각자가 성전으로 건축하라는 의미에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솔로몬 성전은 존재하지 않지만 구약성경 열왕기상하 역대기를 보면 성전이 없는 역사는 존재하지 않았는데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성전의 크기는 한 규빗이 45.6cm이므로 성전의 길이는 60규빗으로 27.36m이고, 폭은 20규빗으로 9.12m이고 높이는 30규빗으로 13.68m인데 여기에 사람이 모여 봐야 얼마나 모이겠습니까? 상가에서 개척교회 하는 정도의 수준일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모이는 예배당을 성전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을 살지만 마음 바깥의 일에 온 힘을 다해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성전으로 짓고 생애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과 만족으로 매듭지어진다면, 이 세상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고 이 육체의 사지백체의 움직임은 다 하나님의 뜻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구체적으로 마음을 성전으로 건축할 수 있을까요.
먼저 성전은 외형을 짓고 그 안쪽의 내부를 짓되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해서 지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들의 역할을 하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안뜰까지 울타리가 쳐졌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러한 성전의 외형이 뜻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으로서 격리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우리 마음에서 돈 건강 자식 가정 사업 등을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둘 곳으로 격리되어야만 합니다. 성전의 정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사도바울의 골3:2절의 말씀대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고 반문을 하시겠지

만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 갈2: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라는 말씀은 폼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색깔을 넣기 위해 그럴듯한 신비적인 이야기를 만들어 낸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 현실이 되어야만 하는데 이것이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곧 내 마음의 외곽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에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것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라고 합니다. 성전 외곽을 쌓을 돌을 다듬는데 성전 가까이에서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성전 내부에서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기 위하여 다듬어진 돌을 가져다 쌓기만 하였는데 이것은 세상에서 들리는 이름들을 부르는 소리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돈 좀 벌었으면 좋겠고 건강하면 좋겠고 출세하면 좋겠고 결혼을 잘 하면 좋겠다.’는 소리들이 죽는 장소가 내 마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 죽으신 것이 내가 죽은 것이라는 한 가지 생각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내 마음으로부터 모든 세상의 이름들과 소리가 차단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될 사건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만 내 마음에 들어온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고 나면 성전 내부의 공사가 지성소와 성소로 나누어지고 지성소에는 법궤와 하늘의 천사를 형상화한 날개 달린 두 그룹이 서게 됩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며 다른 것에 대해서 다 죽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름은 있지만 실체가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용이나 피닉스(불사조) 유니콘 등과 같은 것들이고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오감으로 포착할 수도 없고 표현능력으로 표현할 수도 없지만 앞서 말한 것들과 다르게 실재하심을 법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해당되는 존재가 인격적인 존재이심을 말씀이 기록된 돌판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 인격적이면 뭐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법궤는 나와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살아계신 인격적 존재의 증거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신화적 존재들같이 헛되고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나를 통해 관계를 맺으시며 다가오시는 존재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에 대한 의견과 소원과 계획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 번제단에서 죽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마음에 모셔 들이기 위해서 다른 이름들에 대해서는 죽어야만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천사를 형상화한 그룹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들은 지상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만 있는 존재입니다. 이들을 형상화함으로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름을 담고 그 이름이 인격적으로 나를 향해 관계 맺기 위해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존재하고 계시는데 그룹이 있는 장소인 하늘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하늘로 가야만 하는데 이것이 바로 마음의 가장 깊은 자리인 지성소에서 최우선적으로 일어나야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인격적이고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므로 내 마음이 그 이름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야 합니다. 지난 말씀에서 예를 들었듯이 케이블을 따라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일이 바로 성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소에는 분향단이 있는데 기도를 뜻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떡상이 의미하는 대로 내 마음이 만족해서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상태가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완벽하게 채워져서 기쁨과 행복이 매듭지어지면 이제부터 등대가 뜻하는 대로 내가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해야 할지가 명확해지는데 그대로 움직여 가면 됩니다. 그러면 기차가 레일 위를 달리듯이 하나님의 소원하심대로 내 인생이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직업이 없으십니까? 돈이 없으십니까? 건강이나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라도 상관없이 그 문제들을 뒤로 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바깥의 영역의 일들은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우선 내 마음의 성전건축에 총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모든 것들의 이름들에 대해서 계속 죽는 것입니다.
민21:8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라고 합니다.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위에 들었을 때에 그것을 바라본 자들만이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마음으로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 이름은 허망한 존재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재하시고 인격적으로 살아계시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된 이름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자임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끌고 하늘로 올라가실 것이고 성령님께서 나를 주님과 하나님의 교제 속으로 포함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내 마음이 성전이 되어서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뜻이 적용되기 시작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므로 이 일에 매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에 대해서 내가 주체적이고 인격적으로 해야 될 일을 마음의 영역으로 국한시켜야 합니다. 손가락하나 발가락하나 까딱하지 마시고 입 한번 놀리지 마시고

내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마음의 성전건축에만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마음이 성전이 되어 하나님과의 만남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내 기쁨은 거기에서 매듭지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서 기쁨을 누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 인생을 끝내야만 이 땅에서의 육체의 삶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은 완전히 기쁘고 완전히 만족하고 완전히 행복해야 끝나므로 내 마음의 성전건축에 매진하면서 이렇게 매듭을 짓는 것입니다.
예배당은 없어도 되지만 반드시 나는 성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는 초 단위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이름을 둔 성전으로 바뀌게 하시며, 그럼으로써 이 성전 주변의 모든 육체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